

삼바 둘러싼 살바싸움 오늘 마무리?... 예단은 금물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삼성)

오늘 정례회서 감리결과 조치안 논의
대심 질의응답 통해 사실관계 파악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2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회사 측의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분식 논란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아직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증선위가 지난 12일 임시회의 이후 문제가 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고,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다음달 4일 정례회의 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도 예정돼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20일 오전 9시 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감리결과와 조치안을 논의한다. 2차 역시 1차 정례회의와 마찬가지로 대심제대로 진행된다.

지난 7일 1차 정례회의는 대심제라고 했지만 금감원의 보고를 받고,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의 소명을 듣는 등 양 당사자

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식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열 시간 이상 진행됐지만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12일 임시회의가 열렸다. 금감원 안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임시회의에는 금감원 측 관계자만 참석했다.

2차 정례회의는 양측이 마지막으로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며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두 차례 회의 이후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식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3차 정례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만큼 3차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3차 회의 전에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기한이 돌아온다. 콜옵션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율 50%-1주까지 가능하다.

한편 증선위원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회계) 교수,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재무·금융)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증권법)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연내 갚아야 할 해외 빚 '144억달러'

치솟는 달러값... 韓경제, 부채 늪에 빠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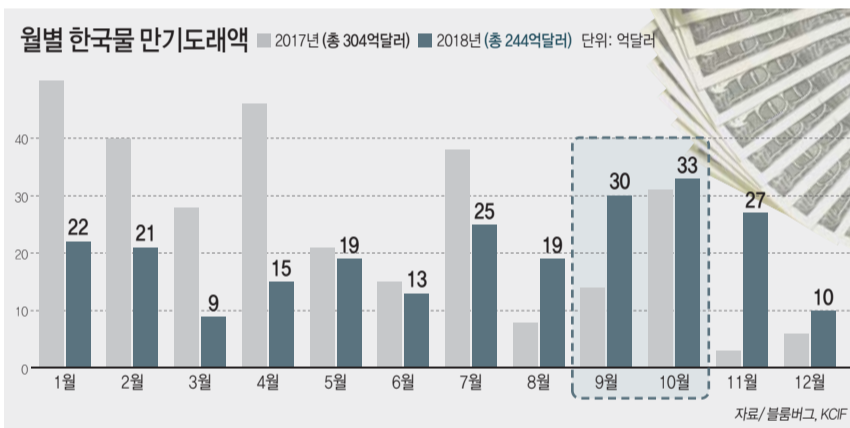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최근 달러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 경제에 '부채' 경고등이 켜졌다. 보통 금리 상승 위험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은 해외 빚(외화) 부담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해외 빚(외화채권)만 144억달러에 달한다.

원화값 하락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수출 대기업의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낙수효과)'도 신통치 않다.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발을 빼고 있다.

◆ 6월 이후 외채 144억 달러 만기 도래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 한국물은 224억달러 규모다.

특히 6~12월 사이에 144억달러의 만기가 몰려 있다. 6월 13억달러, 7월 25억달러, 8월 19억달러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월별로 보면 9월과 10월에 각각 30억달러, 33억달러 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 11월에도 27억달러가 몰렸다.



올해 만기액을 기관별로 보면 국책은행의 빚이 49%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기업(25%), 일반은행(13%), 일반기업(11%) 순이다.

통화별로는 G3통화가 168억달러(비중 70%)로 가장 많다. 이 중 달러화 만기도래액이 52%로 가장 많다. 2015년 발행이 늘었던 위안화 채권(3년물)의 만기 비중도 10%나 된다.

나라 전체 대외 채무까지 더하면 해외 부채는 눈덩이이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준비자산(외화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를 뜻하는 단기외채비율은 30.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저가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환율상승으로 원유구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다"며 "비상플랜 회의를 열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고민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달러부채가 많은 대한항공은 울상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로 조달한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6년 말 기준 86억 달러의 순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860억원 규모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다.

정유 업계도 걱정이다. 환율상승으로 외화부채 부담이 늘어 환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신규 구매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원화값이 하락하면 수출 채산성은 좋아져 빚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달러 본국 회귀... 짐싸는 외국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짐을 싸고 있다.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6월 7~13일 97억달러의 돈이 북미 지역으로 향했다. 반면 중국

을 제외한 신흥국 증시에서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인 1조500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KTBT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외국인 매도 공세에 발미를 제공한 원인 중 하나는 미 연준의 연내 4차례 금리 인상 시나리오이다.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소멸 이후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예상외의 매과(통화긴축)적인 스탠스가 확인되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내 외국인 자금 유출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의 리쇼어링(본국 회귀) 현상은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피하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본국 자금 송환 의지, 미국 증시의 18년 이력 개선 현상은 여타 국가와 차별점을 두기에 더욱 그렇다"면서 "다만 달러의 절상 속도가 일부 취약국을 제외한 전체 신흥국 증시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훼손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박옥희 연구원은 "선진국의 긴축 정책, 재정정책의 한계,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약화하는 가운데 이머징 국가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머징 경제에서의 자금 유출이 강화되며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호준 기자 kmh@

고유가 영향 '수입물가지수' 3년만에 최고

한국은행 '5월 수출입물가지수'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승률 역시 1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8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7.09(2010=100)로 전월 84.80 대비 2.7% 상승했다. 지난 2014년 11월 91.23 이후 3년 반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6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에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올 들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기기(-0.2%)와 자본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두바이유는 74.41달러로 전월 68.27달러 대비 0.9% 상승했다. 이에 품목별로 원유 9.9%, 천연가스(LNG) 4.8% 등 광산품이 전월 대비 6.9% 올랐다. 나프타 11.2%, 병커C유 9.6% 등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2.0% 올랐다. 자본재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84.63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76.39원으로 전월 1067.76원 대비 0.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경유(8.0%), 제트유(7.1%), 휘발유(9.7%), 병커C유(12.7%)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월 대비 8.3% 상승했다. TV용 LCD(-5.7%), 컴퓨터기억장치(-6.0%) 등 전기 및 전자기기는 0.6% 내렸다. 농림수산물 1.9%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 확대로 TV용 LCD 등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부동산시장 위축... 주택거래량 '6만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6만건대로 떨어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899건으로 작년 동기(8만5046건) 대비 20.3% 줄었다. 5년 평균(9만506건)으로 견줘도 25.1%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은 1월 7만354건, 2월 6만9679건, 3월 9만2795건, 4월 7만1751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달에는 7만건 아래로 내려갔다.

5월 수도권 거래량은 3만505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5.6% 줄었고, 서울은 1만1719건으로 작년보다 37.2% 감소했다.

지방 거래량은 3만2735건으로 13.7% 떨어졌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4만198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3%, 연립·다세대는 1만4389건으로 23.0%, 단독·다가구주택은 1만1411건으로 12.0% 각각 감소했다.

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015건으로 작년 동기(13만8795건) 대비 8.5%, 지난달(15만3609건)보다는 17.3%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작년 동기(43.3%)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